

# 2017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

강원도 영월군  
- 영월석정여자중학교



2018. 1

---

이\*윤

---

학교에 와서 중학생들을 멘토링해본 적은 처음이라 활동을 시작하기 전 걱정이 많았습니다. 그렇지만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, 집중을 해주어서 걱정했던 것과 달리 진행이 순조로웠습니다.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꿈을 이루고 현재의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제가 멘토로서 해줄 수 있는게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의미에서 제가 겪은 학창생활과 그때 느꼈던 감정과 생각, 그리고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던 계기들을 공유해주고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대답해줬던 “질의응답” 프로그램이 굉장히 의미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이 캠프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했던 이 시간들이 앞으로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.

---

이\*진

---

멘토링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과 멘토들이 서로 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.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 역시 학생들의 열정과 긍정적 에너지를 통해 많이 배워가는 것 같다고 느꼈다.

---

박\*은

---

영월에 오는 게 처음이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첫날부터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하며 맞아주어서 안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.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모든 학생들과 몇 분씩은 꼭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곁에 다가갔다. 처음에는 생소하였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특별하게 느껴져왔다. 우리가 몇 주간 준비해온 이 프로그램들이 학생 모두에게 유익하였으며, 즐거운 추억이 되었다고 후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 나는 5일간 석정여중에서 사범대 학생으로서 교사의 자질에 대해 더 생각해볼 수 있었고, 진로와 관련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.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소통하며 유익한 활동을 했다는 것,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.

---

이\*연

---

이번 봉사활동이 가장 좋았던 이유는 과목을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이 아니었다는 것이다. 왜냐하면 강의식수업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. 테이블멘토링을 통해서 서로의 깊은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었고, 에코백만들기,슬라임만들기를 통해서 아이들 각자의 개성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.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.

경험을 쌓아보려고 지원한 멘토링 캠프였는데 내가 직접 고민하여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진행하고 멘토가 되어주면서 나 또한 생각보다 배운 점이 많았다. 또 내가 학창시절부터 진로와 진학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것들을 멘티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 기뻐다.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은 아쉬웠다.

---

허\*선

---

처음해보는 봉사활동이었지만 즐겁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어서 봉사하는 동안 부담스럽지 않고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다. 아이들의 진로 관련해서 조언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이 가장 뿌듯했다. 다만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과 자세한 대화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.